

멥덴, 묵직한 볼 끝... 첫 피칭부터 '엄지척'

“한국은 내 운명.”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멥덴이 2일 새로운 팀에서 첫날을 보냈다.

지난달 18일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그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2일 KIA 캠프에 합류했다.

멥덴은 이날 정식 피칭은 아니었지만, 캐치볼을 통해 다양한 변화구를 던져보면서 몸을 풀었다.

캐치볼 이후 개인 러닝을 소화한 멥덴은 웨이트까지 짊어 바쁜 하루를 보냈다.

멥덴은 “첫날이라서 스케줄이 많았다. 팀을 배우려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가고 있다”며 “비시즌에 공을 못 던졌고, 2주 격리 기간에도 스로잉만 했기 때문에 첫날 힘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멥덴은 볼펜포수 이동건과 짝을 이뤄 캐치볼을 했다. 첫 훈련치고는 꽤 강한 공을 뿌려 눈길을 끌었다.

이동건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커터를 구사했다. 전력으로 던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에 힘이 있었다”며 “비시즌 동안 준비를 잘한 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했다.

앞에서 캐치볼을 하던 임기영도 “이대로 피칭해도 되겠다”며 멥덴의 공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멥덴은 많은 팀이 주목하던 외국인 선수 자원이자. 멥덴의 선택은 옛 동료들이 있는 타이거즈였다.

“한국에 처음 왔다”고 언급한 멥덴은 “미국과 많이

KIA 새 외국인 투수 캠프 합류

슬라이더·체인지업 등 구종 점점

임기영 “이대로 등판 가능” 찬사

브룩스·터커와 한때 한솥밥

멥덴 조부 6·25전쟁 참전용사

“한국행은 운명...응원문화 기대”

다르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익숙해질 것이다. 감독님과 코치와 선수로 2년 정도 함께 했고, 브룩스와도 오글랜드에서 2년을 보냈다. 브룩스가 시즌 준비와 경기, 심판 성향, 선수들의 위계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해줬다. 터커와도 휴스턴 캠프에서 같이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처음 찾은 한국이지만 멥덴에게는 특별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다.

멥덴은 “할아버지께서 2년 정도 참전하셨다고 들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많은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내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할아버지께서 운명인 것 같다고 하셨다”며 “대를 이어 이곳에 왔다. 전통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운명의 땅”에 온 멥덴은 팀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승리를 이끄는 투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멥덴은 “타이거즈에 잘 적응해서 좋은 시즌을 보낼 것이다. 선발로 많이 뛰었는데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롭릴리프와 선발 등 보직이 많이 바뀌었다. 선발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많이 이기는 것이 목표다.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팀원들과 잘 지내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고의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팀이 잘되어야 한다. 팀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다”며 “선발로서 많은 이닝에 나서고 투수 부문 성적에서 모두 10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멥덴은 열정적인 KIA 팬들을 만날 순간을 그리고 있다.

그는 “한국의 응원 문화에 대해 들었다. 경기 내내 음악이 나오고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 무대를 경험해봐서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다”며 “KIA 팬들도 열정적이라고 들었다. 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

자신을 상징하는 ‘콧수염’에 대해서는 “대체 시절부터 팬들이 좋아해 주셨다. 메이저리그 초반에도 길었는데 오글랜드로 트레이드됐을 때도 팬들이 물리 핑거스 같다고 좋아해 줬다”며 “(콧수염을 기르는 동료들도 봤는데) 잘 길러서 누구 수염이 더 멋진지 겨뤄보고 싶다”고 웃음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



멥덴

KIA, 잠실서 두산과 개막전

KBO 올 시즌 일정 발표...4월 3일부터 NC·키움전

포스트시즌을 목표로 2021시즌을 준비하는 KIA 타이거즈가 개막전부터 ‘5강 테스트’를 받는다.

KBO가 2일 2021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KBO 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윌리엄스 감독은 두산 베어스 안방으로 가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4월 3·4일 잠실에서 두산과 개막 2연전을 치른 KIA는 6·7·8일 고척으로 건너가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그리고 4월 9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벌인다.

KIA로서는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이다. 대전팀들이 모두 지난 시즌 ‘가을 잔치’ 멤버들이다.

개막전 상대 두산은 시즌 마지막까지 전개된 순위 싸움에서 승자가 되면서 3위로 정규시즌을 마감했다. 시즌 내내 상위권 싸움을 했던 키움도 5위로 가을 잔치를 벌였다. NC는 1위 독주를 이어가며 창단 첫 우승까지 이뤘던 ‘디펜딩 챔피언’이다.

특히 두산과의 승부는 ‘가짜승’의 의미도 있다.

KIA가 지난 시즌 5강 꿈을 이루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는 두산전 부진이다.

지난해 KIA는 NC를 상대로 9승 7패를 기록하면서, LG와 함께 상대전적에서 1위 팀을 압도했다. 키움에도 9승 7패로 우위를 점했지만, 두산에는 3승 13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2019시즌에도 3승 13패를 기록하는 등 2년 동안 단 6승을 챙기는 데 그쳤다. 지독한 ‘잠실 열쇠’도 계속됐다.

어려운 상대와 첫판을 치르게 된 윌리엄스 감독은 “우리에게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두산, 키움, NC를 만나게 된다. 승리하고, 좋은 야구를 하려면 이 팀들을 이겨야 한다.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개막 일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한편 2021 KBO 정규시즌은 4월 3일 개막해 팀간 16차전,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가 진행된다.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는 도쿄 올림픽으로 KBO 정규시즌이 잠시 멈춘다.

개막전은 2019년 최정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됐다.

잠실에서 KIA와 두산이 만나고, 문학(롯데-SK

), 창원(LG-NC), 수원(한화-KT), 고척(삼성-키움) 등 5개 구장에서 개막 2연전이 펼쳐진다.

4위 LG는 두산과 구장이 중복되면서 6위인 KT의 홈구장으로 가서 개막전을 치른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사직(KIA-롯데), 잠실(LG-두산), 창원(SK-NC), 고척(KT-키움), 대전(삼성-한화) 경기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엔 발표된 경기일정은 10월 8일까지 715경기가 편성됐다.

미편성된 5경기는 추후 우천 등으로 순연되는 경기와 함께 10월 9일 이후 재편성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베테랑 수비수 광광선 영입

프로 13년차...대인방어·태클·커버 플레이 장점

광주FC가 13년 차 베테랑 광광선(34)을 영입해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는 2일 “강원FC, 수원삼성, 전남드래곤즈 등에서 맹활약한 베테랑 수비수 광광선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프로 13년 차인 광광선은 186cm·76kg의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탄탄한 대인방어와 태클, 커버 플레이가 돋보이는 중앙 수비수다.

빠른 발과 정확한 패스로 빌드업, 공격전개 시에도 좋은 능력을 보여준다.

익산 이리고 출신의 광광선은 숭실대를 거쳐 2009년 강원의 창단 멤버로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프로 첫해 28경기에 나온 그는 2010년에도 30경기를 뛰는 등 전 경기에 출장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 역할을 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태클 실력을 바탕으로 ‘메이저 태클’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팬들이 ‘광선’이라는 이름을 토대로 붙인 별명이다.

2012년 수원으로 이적한 광광선은 수비라인을 지휘한 뒤 상주상무에 입대해 2015시즌 K리그2 우승을 이끌었다.



수원으로 복귀한 2016년에는 KEB 하나은행 FA컵 우승에 이바지했다.

앞선 두 시즌은 전남 유니폼을 입고 42경기를 소화하며 팀에 안정감을 더했다.

광광선은 K리그 통산 309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하고 있다.

광광선은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에 입단해 기쁘다. 내 모든 경험이 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다”며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주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훈련을 통해 주전 경쟁에서 이겨내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강정호 뛰던 피츠버그 가나

美 언론 “선발로 영입 가능”

역대 성적·구종 등 소개

원손 투수 양현종(33)이 미국프로야구(MLB)의 ‘해적 군단’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팬사이드드는 피츠버그가 KBO리그 출신의 양현종을 영입할 수 있다고 2일 예상했다.

이 매체는 베테랑 원손 투수 양현종이 피츠버그에서 선발 투수 자리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츠버그는 내야수 강정호가 된 팀으로 한국 팬에게도 익숙하다.

조 머스그로브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제임슨 타이슨을 뉴욕 양키스로 각각 트레이드한 피츠버그는 구명 난 선발 투수를 채울 후보들을 탐색 중이다.

팬사이드드는 KBO리그에서 14년을 KIA 타이거즈에서만 뛰던 양현종의 이력을 소개하고, 양현종이 통산 1986이닝을 던졌으며 볼넷 허용률은 9.4%, 탈삼진율은 19.8%를 찍었다고 전했다.

또 7년 연속 투구이닝 170이닝을 넘겨 내구성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야구전문잡지 베이스볼아메리카가 소개



한 작년 시즌 전 양현종의 평가도 곁들였다.

베이스볼아메리카는 양현종이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4개 구종을 던지고 제구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했다.

나이가 들어도 빠른 볼에 의존하지 않아 빅리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기록 없는 투구를 할 수 있다

는 점, 피츠버그가 젊은 투수들의 격자를 메우는 데 리로 안정감 있고 꾸준한 양현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팬사이드드는 ‘해적행’을 점했다.

한편 양현종은 빅리그에서 뛸 기회를 얻는 40인 로스터 포함만을 조건으로 내걸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 중이다.

/연합뉴스

황희찬 임대 불발...라이프치히 잔류

독일 프로축구 라이프치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며 겨울 이적시장 임대설이 제기됐던 황희찬(25)이 결국 팀에 남게 됐다.

현지시간 1일로 유럽 이적시장이 마감된 가운데 황희찬의 거취와 관련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맹활약하다 지난해 7월 라이프치히로 이적, 독일 1부리그 무대를 밟았으나 2020-2021시즌 정규리그 7경기를 포함해 9경기 출전에 그치며 임대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겔스만 감독은 황희찬의 ‘임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면담을 통해 황희찬의 의중을 파악하고,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조차 아직 훈련이나 경기를 통해 황희찬의 기량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다른 팀으로 보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제 남은 건 황희찬이 부상 없이 컨디션을 유지하며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인 라이프치히에서 중용될 만한 기량을 입증하는 일이다.

라이프치히는 당장 한국시간 4일 오전 2시 30분 2부리그 팀 보훔과의 DFB 포칼 16강전을 시작으로 3개 대회 일정을 연이어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